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분만 후 일주일 후에 모돈식물 동반과 함께 2~3일후 청색 젖이 비치다가 자돈 설사 및 구토 증세와 함께 모든 무유증이 발병합니다. 이후 자돈에게는 경구용 항생제 투여 및 앤로프로락신 제재로 주사하면 설사 및 구토 증상은 완화되나 모돈은 링거 투여 및 무유증 예방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BCS 2.5~3.0 사이의 모돈이 자주 발병합니다. 대책 및 예방 방법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분만 1주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M.M.A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초기엔 고열을 수반하다가 경과하면 정상 체온이 되곤 합니다. 발병 초기에 모돈 치료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 결국 무유증이 되지요. 초기 치료 시엔 광범위 항생제(암피실린제 등)+해열제, 대사촉진제 등으로 3~4일 간 치료한 후 예후를 관찰해 보세요. 한번 무유증이 되고나면 여간해서 치료는 힘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임신 70~80일 사이 사료 조절은 유량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말기부터 분만 후 1주령 전후 고급유기산제(글루콘산 등)을 투여해보세요. 자돈 치료 방법은 나쁘지 않으나 모돈이 어렵습니다.

Q 자돈 가루맘마사료까지 섞어서 주었는데 먹질 않습니다. 온도는 정상이고, 초산돈입니다. 초산돈은 자주 그런다고 하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초산돈일 경우 체온이 정상이면서 안 먹을 때는 생리적인 현상이거나 자궁이 횡격막을 압박하다보면 폐나 위에 부담이 가게 될 때도 일시적인 식욕부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청초나 전해질 또는 영양제 등을 음수로 투여하거나 주사하여 체력보강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무조건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후보돈 시절이나 말기 과비 된 상태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말기에 운동량을 늘려주도록 하세요.

Q 비육사 클리닝은 언제 해야 하며, 출하 시에도 클리닝을 해야 하는지 또한 클리닝 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 대표>
 클리닝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무항생제 사료가 아니라면 사료 내 적정량의 항생제와 필요 약제들이 첨가돼 있으

며 그래도 꼭 필요 시, 예를 들면 환절기나 어떤 특정 질병의 예방목적일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한다 해도 일령별 발생 질병 유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문제 질병을 확인 후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즉, 자돈전기에는 소화기 질병+ 마이코플라스마증이나 글래서 병 예방 목적의 광범위 항생제 (암피실린제, 마크로라이드계 등)가 효과적이고, 중기엔 파스투렐라성 폐렴 목적의 겐타마이신제나 플로르페니콜제 또는 일부 세티푸어제 등도 괜찮을 것 같고, 말기엔 주로 APP에 의한 흉막폐렴이 많으므로 암피실린제나 아목실린제가 효율적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농장별 감수성 차이가 크게 틀릴 수도 있으니 인근의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약제 감수성 검사와 농장 자체에서 사용 후 검증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 번식 및 육종 ● ●

Q 보통 종돈장에서는 순종과 교배 후에 F1을 (웅돈, 후보돈) 일반 비육농장에 분양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F1을 교배시키면 F2가 된다고 합니다. 순종과 순종, 순종과 F1, 그리고 같은 종이 아닌 다른 종 (듀록, 랜드, 요크)과의 교배 후에 F1, F2, F3...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A <심금섭 천안연암대학교 축산과 교수>
F1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개의 품종을 교배하여 만든 돼지를 F1 즉 1대 교잡종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돈장에서 F1을 생산하는 것은 랜드레이스(L)와 대형요크셔(Y)를 교배시켜 LY또는 YL의 암돼지를 생산하여 비육농장에 후보돈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만들어진 LY또는 YL수퐁지는 비육처리 합니다. 백색계인

랜드레이스와 대형요크셔를 이용하여 F1 후보돈을 만드는 이유는 랜드레이스와 대형요크셔를 교배했을 때 잡종강세 효과가 커져 산자수와 포유 능력이 우수한 후보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F1 후보돈에 일반적으로 듀록(D) 수컷의 정액 또는 수컷으로 자연교배를 하여 3원교잡종인 LYD가 생산되며 이때 만들어진 LYD 암돼지나 수퐁지를 F2라고 부릅니다. 만약 비육돈으로 생산된 F2암돼지를 후보돈으로 선발하여 번식에 이용하여 생산된 자돈들은 F3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 분 뇨 ● ●

Q 스크레퍼로 분뇨를 끌어다가 퇴비장에 갖다 놓을 때 돈사에 구배가 너무 엉망으로 잡혀서 분과 뇨가 분리가 잘 안됩니다. 스크레퍼 분뇨를 분리할 수 있는 고액분리기 같은 기계가 없을까요.

A <강원구 이코어테크 대표>
고액분리한 액상물을 액비나 해양배출한다면 액상물의 농도가 높아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압이 가해지는 원심력이나 압착식에 의해 고액분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을 가하면 고형물에 함수율이 낮아 수분 조절재 없이 고형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액상물의 농도를 낮춰야 하는 농장 내 정화처리나 공공처리장에 위탁처리해야 할 경우 액상물의 농도를 최대한 낮춰야 하기 때문에 고액분리 할 때 가능한 압이 가해지지 않은 스크린 방법이나 저속원심분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돈**